



미 증시, 인플레이 경계심리 지속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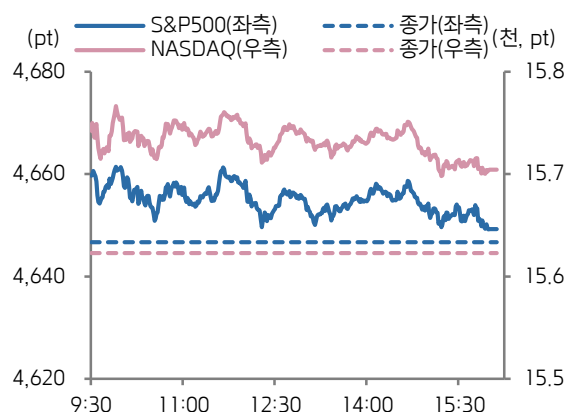
11 일 (목)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이후 신규 재료 부재 속 일부 차익실현 압력으로 장중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흐름을 보임. 다우 지수는 디즈니(-7.1%)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500 은 반도체 및 기술주 중심의 기술적 및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마감(다우 -0.44%, S&P500 +0.06%, 나스닥 +0.52%, 러셀 2000 +0.82%).

미국 증시는 선별적인 저가매수세 속에서 장 초반 0.3% 상승 출발. 이날 미국 채권시장은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을 하면서 금리 방향성, 경제지표, 연준위원 발언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함. 결국 고점 부담은 지속되면서 상승폭을 줄임.

업종별로 소재(+0.9%), IT(+0.5%), 금융(+0.3%) 등이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0.6%), 커뮤니케이션스(-0.5%), 산업재(-0.4%) 등이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9%)는 엔비디아(+3.2%), AMD(+4.4%) 등 강한 반등으로 급등, 다우 운송지수(+0.7%)와 중소형주들도 견조한 반등을 보임(러셀 200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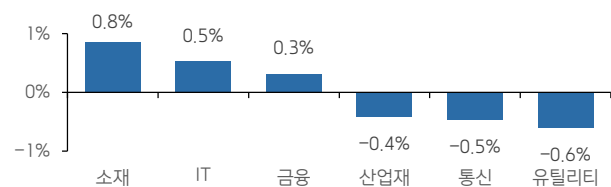
종목별로 전일 상장한 리비안(+22.1%)은 전일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감. 실적에 따른 쏠림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어텀 홀딩스(+13.7%), SoFi 테크놀로지(+12.5%), 그리고 오픈도어 테크놀로지(+15.6%) 모두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한 반면, 디즈니(-7.1%)와 비온드 미트(-13.3%)는 실적 부진으로 각각 큰 폭 하락. 디즈니는 EPS 0.37 달러(예상 0.51 달러), 매출 185.3억 달러(예상 187.9억 달러) 그리고 총 구독자수 1.18억명(예상 1.25억명)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 비온드미트는 EPS -0.87 달러(예상 -0.39 달러), 매출 1.06억 달러(예상 1.09억 달러)로 부진. 한편 테슬라(-0.4%)는 머스크 CEO 가 테슬라 주식을 50억 달러어치 매각했다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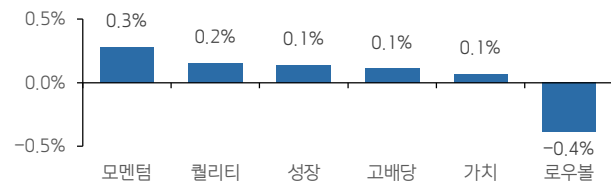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49.27	+0.06%	USD/KRW	1,180.86	+0.01%
NASDAQ	15,704.28	+0.52%	달러 지수	95.17	+0.34%
다우	35,921.23	-0.44%	EUR/USD	1.14	-0.26%
VIX	17.70	-5.5%	USD/CNH	6.39	-0.13%
러셀 2000	2,409.14	+0.82%	USD/JPY	114.08	+0.15%
필라. 반도체	3,764.49	+1.9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708.48	+0.73%	국고채 3년	1.915	+3.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47	+3bp
Eurostoxx50	4,358.00	+0.21%	미국 국채 2년	0.513	+0bp
MSCI 전세계 지수	751.46	-0.71%	미국 국채 10년	1.549	+0bp
MSCI DM 지수	3,201.57	-0.8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74.39	+0.11%	WTI	81.18	-0.2%
MSCI 한국 ETF	78.65	+1.2%	금	1864.6	+0.8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7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1.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과 중국 물가 쇼크 여진의 국내 증시 반영 가능성
2. NFT, 메타버스주의 추가 상승 기대 vs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중국 광군절 기대감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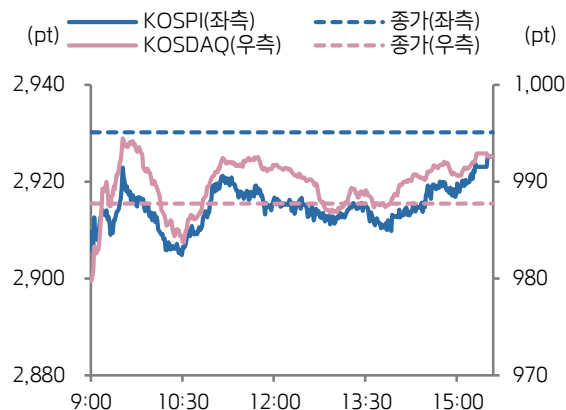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0 일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쇼크가 인플레이션 경계심리를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 연말 소비시즌 수요, 공급난 지속, 원자재 가격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 시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미 연초 이후 주식시장이 경험해오고 있었던 변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이슈로 인한 증시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우위에 있었던 자산군이 주식 자산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미국과 한국 모두 3 분기 실적시즌이 종반부에 진입함에 따라, 추후 경제지표, 연준 발언 등 매크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다만, 현재는 3 분기 실적 그 자체보다, 기업들이 제시한 가이드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년도 실적 전망 추정치 변화 여부가 중요한 상황. 따라서, 매크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간, 업종간 실적 전망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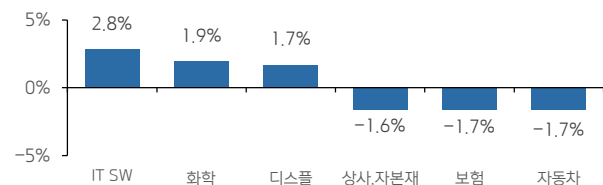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낙폭과대 인식 속 미국 나스닥 시장 반등, 글로벌 인플레 경계심리 등 호재 및 악재성 대외 재료를 소화하며 반등을 시도하겠으나, 지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현재 국내 증시는 NFT, 메타버스, 친환경 순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해당 테마들이 지닌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라는 점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테마인 것은 사실. 다만, 해당 테마 내 일부 기업들은 아직 사업이나 실적이 실체화 되지 않았음에도 폭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 쏠림현상이 극도로 진행이 되면서 과열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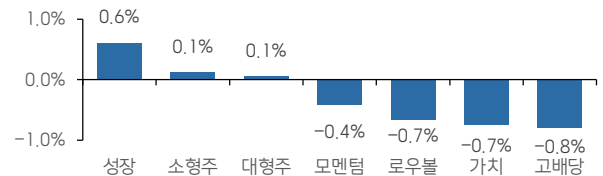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